**2021 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인간과 언어**

**학 번 : 201811-305662**

**성 명 : 서지향**

**연 락 처 : 010-9188-2611**

o 과제유형 : ( 공통 ) 형

o 과 제 명 :

1. 교재 1장(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참고하여 인간 언어의 특징을 동물의 언어와 비교하여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6점]

2. 교재 12장(멀티미디어 강의 12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후 5년까지의 본인의 언어 습득 과정을 상상하여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8점]

3. 교재 13장(멀티미디어 강의 13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이 느낀 모국어 습득과 영어 습득의 가장 큰 차이를 예시와 함께 밝히시오. [8점]

4. 교재 14장(멀티미디어 강의 14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외국어 교육 이론에서 주장하는 외국어 교육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논하고, 그 이유를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8점]

- 이하 과제 작성

※ A4용지 편집 사용

1. 교재 1장(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참고하여 인간 언어의 특징을 동물의 언어와 비교하여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현대의 동물학에서는 동물들도 일정한 패턴의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꿀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온 꿀벌들은 미세한 춤 동작으로 그곳의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려줍니다. 꿀이 벌집에서 10여미터 이내일 때에는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그 이상이면 8자 모양으로 춤을 춘다고 합니다. 또한, 돌고래들은 휘파람 소리나 꿀꿀 거리는 소리를 사용하여 물속에서 진동으로 다른 돌고래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립니다. 당연하게도 동물들은 서로 어느정도의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고 잘 훈련된 동물 예를 들어, 침팬치나 개와 같은 동물들은 인간과의 소통 또한 가능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를 동물이 배우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대표적인 특징인데 동물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료들에게 어떠한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를 학습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를 통하여 계승되는 것 입니다. 동물들은 부모로 부터 받은 유전자안에 이러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한 동안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일정한 시간동안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한정에 가까운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뿐 만 아니라 유전자를 전제로 한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를 넘어 학습으로 얻게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동물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 표현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간의 언어는 의사표현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게 해주고 이러한 기억은 경험을 축적시켜주고 이는 사회와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는 결론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 입니다. 두번째 특징으로는 인간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장을 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경험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이를 창조성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휘는 무한정이므로 가장 긴 문장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언어는 선천적으로 한계를 갖고 계승 되기 때문에 동물의 언어에서 창조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간의 언어는 음성 언어에 의존하는데 반해 동물의 의사소통은 소리 보다는 몸짓언어에 의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소리언어에 비해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다양성 측면에서 동물의 의사 표현을 하는데 장애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들의 의사 표현은 배고픔이나 화남 등 생리적인 충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교재 12장(멀티미디어 강의 12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후 5년까지의 본인의 언어 습득 과정을 상상하여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8점]

6개월~만1세까지의 옹알이 시기에는 울음을 통하여 아 또는 우 라고 소리를 내며 저의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기저귀가 젖어 찝찝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졸리게 되면 울음소리를 통하여 저의 부모님에게 저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돌이 가까워 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음성의 고저 또는 억양을 통하여 의사표현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만 1세~2세 사이 낱말 발화 시기에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대뇌 피질과 소리의 조음에 필요한 입과 목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아, 아아 등 원하는 단어를 부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엄마나 아빠를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으시고 말을 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만 2세~3세 전보체 발화시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시기 였는데 보통 2~3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정확한 문장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원하는 표현을 단어를 이용하여 말하다 보니 의사소통이 되었고 감정 표현도 가능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월하게 알아 들어서 한 숨 돌리셨다고 합니다.

만 3세~4세에는 아는 단어나 표현들이 늘어나서 3~4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복수형이나 관사 전치사 등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의미로서의 대화가 가능해졌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큰 의미에서 사회를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한 번은 단어 공부를 하는데 고래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어 고래를 보고 싶다고 부모님을 조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빠는 집 근처 횟집에 데리고 가 방어를 보고 고래라고 하셨고 저는 상당한 기간동안 방어가 고래인 줄 알았습니다.

4세 이후 문법과 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의문문이나 부정문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그 당시 부모님을 상당히 괴롭혔던 시기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항상 “왜?”를 달고 살아서 부모님이 대답해주는데 하루가 갈 정도 였다고 합니다. 가끔씩 성인의 말과는 다른 독특한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가요” 나 “했다요” 같은 말이었는데 이러한 문법적 오류는 5세가 넘어가면서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교재 13장(멀티미디어 강의 13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이 느낀 모국어 습득과 영어 습득의 가장 큰 차이를 예시와 함께 밝히시오. [8점]

모국어의 습득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의 언어가 모국어 이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부터 습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의 의사표현을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누군가가 말을 하기 때문에 듣기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하기와 듣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것 또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의 학습은 습득이 아닌 학습으로 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와 읽기를 하게 되니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암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학습의 경우 학교라는 배움의 목적이 있는 집단에서 시험을 목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필요에 의한 습득이 되지 않고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어의 자연스러운 습득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행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1년동안 학교 시험이나 토익을 목표로 학습을 한 사람과 외국에서 대화를 목적으로 영어를 습득한 사람은 같은 기간을 공부했다고 해도 후자의 사람이 외국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더욱 유창할 것 입니다. 인도는 영어와 힌디어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입니다. 학교를 가기전까지 가정에서 힌디어만 사용한 인도인도 학교를 들어가서 영어로만 수업이나 대화를 하다보니 원어민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시를 통하여 말하기와 듣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수업이 영어의 습득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교재 14장(멀티미디어 강의 14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외국어 교육 이론에서 주장하는 외국어 교육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논하고, 그 이유를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8점]

저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효율적이락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제 경험상으로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법이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본질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초중고 12년의 교육과정을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학교에서 배운 영어교육으로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나 좀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할 지 의문마저 드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운 영어학습은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청화식 교수법이 섞인 교육이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문법번역식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수치화하기 효율적이기 때문에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처음 만났을 때 상대의 안부를 물을 경우 “How are you? “ 라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학교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Fine thanks and you” 라고 답 할 것 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바뀌었을 수 도 있지만 제가 교육 받았던 8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이 정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Fine thanks and you”라는 대답 외에 다른 대답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시험 문제에 5개의 보기를 주고 “Fine thanks and you”를 하나 껴 넣으면 채점하기가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방식으로 진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어 교육이 직접교수법이나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방법이었다면 객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도 못 할 뿐더러 채점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학교측에서만 유리한 방법이며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획일화된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 외국인과 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대화가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영어권 국가의 여행을 했을 당시 호주를 여행했었는데 외국인과 대화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대화를 해보니 상대방의 반응이 어색하고 이러한 대답을 처음 접해본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How are you? “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good 또는 그 날의 기분 등을 가볍게 표현하면 되었던 것 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안부에서 부터 적절하지 못 한 대답을 하는 교육방법이 과연 맞는 것 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로부터 몇년 후 필리핀 어학연수를 2달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필리핀 어학원에서는 직접교수법과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법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였습니다.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는 외국인 교사와 위의 두가지 교수법으로 교육을 하다보니 저의 영어 실력은 2달 뒤에 상당히 발전하였고 현재는 외국을 나갈 경우 간단한 대화에서 항공권 발급 및 관광지에서의 영어 설명 또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12년을 배운 학교 교육보다 2달간의 필리핀 어학연수의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본질적인 목표는 서류의 해석이나 나의 의사표현을 글로써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와 말하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언어 습득과정에서도 말하기와 듣기를 먼저 하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전자의 방식으로 교육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